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삶, 더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
고양시청소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성장을 돕는 자료가 되기를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의장 김다인

존경하는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의 의장 김다인입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지금까지의 제7대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는 지금까지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17명의 청소년 의원들의 열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더 나은 고양특례시로서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공동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의정백서는 이러한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고양특례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의 청소년의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길었고, 누군가에게는 짧았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을 펼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의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힘써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성장에, 그리고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끝없이 고민하고, 더욱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17명의 청소년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믿고, 지지해 주신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님, 모든 도·시의원님들, 고양시 청소년재단 최회재 대표이사님, 박미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님, 박미나 부장님, 청소년 지도사 장소희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및 멘토님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의 부모님들 및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분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다면,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의의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청소년의회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의정백서가 청소년들의 참여와 성장을 돕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빛나는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부의장 이승헌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의원님들을 비롯한 고양특례시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부의장 이승헌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본회의는 청소년의회의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한 정책이 빛을 보이는 날입니다. 이번 7대 청소년의회의는 올해 4월 가졌던 워크숍에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교육과 조언을 받으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여덟 차례의 정기회의와 두 차례의 평가회의, 두 차례의 설문조사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며 질 높은 정책 제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이번 7대 청소년의회의에서는 의원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그 덕에 함께 질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많은 탓에 어려움을 겪은 상임위원회도 분명히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닦친 어려움 역시 돌파해 정책 제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각종 평가 등 어쩔 수 없이 닦쳐오는 시련들로 인해 청소년의회의 활동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의 삶을 생각하며 신분과 시련의 벽을 넘고 이번 본회의까지 일곱 달에 달하는 기간을 달려와 이곳 고양특례시의회의까지 다다르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가 3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18년 2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부터 27명으로 30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 7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는 18명으로 시작해 처음으로 20명의 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학업에 지장이 간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의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청소년의회의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더 많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함께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청소년의회의는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빛나는 현재와 미래를 만들도록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의장으로서 오늘 진행되는 본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제안되는 정책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고양시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청소년 여러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입니다.

오늘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 여러분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17년 1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었고, 미래의 주역인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청소년들의 권리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는 주어지고 있는지, 소외받는 곳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소중한 의견을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청소년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고양시 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바란다면 스스로 그 변화를 일으켜야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노하영

존경하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을 지낸 노하영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열정이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신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청소년의회가 7대까지 이어져 이렇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단순히 의견 교환이나 의회 체험을 넘어 고양시 내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회의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그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오셨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멘토단분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바란다면 스스로 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할 적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고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목소리 내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청소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일 뿐 아니라 현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은 청소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학업과 병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제1대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청소년의회를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쌓아 올린 노력과 인연이 대대로 연결되어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여 유도 등 지금의 고양시청소년의회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또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양시청소년의회를 거쳐간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7대 청소년 의회 의원 여러분, 성공적인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단



의장 김다인
고양국제고등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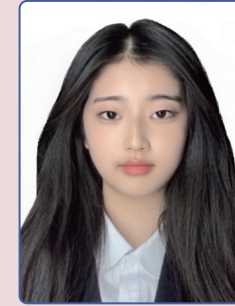


부의장 이승현
서정고등학교
덕양구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아인
덕은한강중학교
덕양구



부위원장 권세린
백신중학교
일산동구



서윤아
신원중학교
덕양구



이은교
도래울중학교
덕양구



주하은
백신중학교
일산동구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곽지유**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부위원장 **양은호**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구승아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이루리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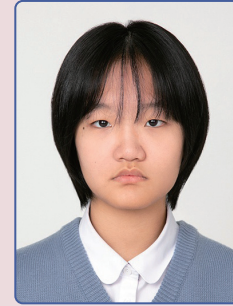


이승현
서정고등학교
덕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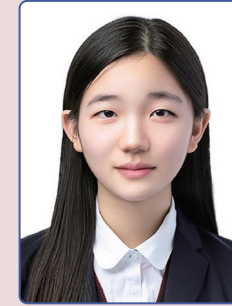


조하은
저동중학교
일산동구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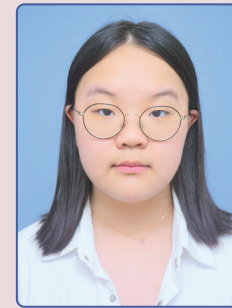
위원장 **서예림**
목암중학교
덕양구



부위원장 **김태연**
저동중학교
일산동구



김민기
광성드림학교
일산서구



신주은
백석중학교
일산동구



조주연
백석중학교
일산동구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년 멘토단



김민재
동국대학교
안전상임위 멘토



홍승우
중부대학교
교육상임위 멘토



백채린
강원대학교
인권상임위 멘토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 사진

2024. 3. 23. 오리엔테이션



2024. 4. 6. 출범식



2024. 4. 13. 의정 워크숍



2024. 4. 14. 의정 워크숍



2024. 4. 20. 제1차 정기회의



2024. 5. 4. 제2차 정기회의



2024. 5. 18. 1차 정책 설문조사



2024. 5. 25. 제3차 정기회의



2024. 7. 27. 제7차 정기회의



2024. 8. 17. 제8차 정기회의



2024. 6. 1.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회



2024. 8. 24. 하반기 의정활동 평가회



2024. 9. 7. 제9차 정기회의



2024. 6. 8. 제4차 정기회의



2024. 7. 13. 2차 정책 설문조사 & 제5차 정기회의



2024. 7. 20. 제6차 정기회의-청소년제안창작소 참관



목차



| | |
|-----------------------------------|------------|
| 제1편 고양시청소년의회 기본현황 | 017 |
| 제1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 018 |
|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 020 |
|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 022 |
|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 024 |
|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사진 | 025 |
| 제6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 026 |
| | |
| 제2편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 | 027 |
| 제1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 029 |
| 교육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 031 |
| 안전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 037 |
| 인권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1) | 047 |
| 인권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2) | 057 |
| 의회 프로젝트팀 제안 정책 | 063 |
| 제2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 067 |
| | |
| 제3편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에필로그 | 079 |
| 청소년의원 의정활동 소감 - '나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 080 |
| 청년멘토 소감 -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 087 |
| | |
| 제4편 부록 | 089 |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90 |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 094 |



제1편

고양시청소년의회 기본현황



제1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018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020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22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4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사진 025

제6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6

제1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고양시청소년의회란?

- ▶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고양특례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 ▶ 출범식, 의정워크숍, 의정활동(정책제안,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 보고회, 본회의 개최
-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고양시·의회에 제안하는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

추진근거

1)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UN, ICNYP)의 권고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1)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양시 조례 제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 | | |
|------|-------|---|
| 2024 | 11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보고회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고양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포럼 |
| | 9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 | 8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평가회 |
| | 7월 |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접수 (1건)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2차 정책 설문조사 |
| | 6월 | 경기도·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제안 접수 (각 4건)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회 |
| | 5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1차 정책 설문조사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및 가결 |
| | 4~10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
| | 4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워크숍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식 |
| | 3월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청소년의원 18명, 청년 멘토 3명) |

| | | |
|------|-----|----------------------------|
| 2023 | 12월 |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
| | 10월 |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 | 7월 |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
| | 4월 |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식 |
| | 3월 |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6명) |

| | | |
|------|-----|----------------------------|
| 2022 | 12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
| | 10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 | 7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국회의사당 견학 |
| | 5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
| | 3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4명) |

| | | |
|------|-----|-------------------------------|
| 2021 | 11월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
| | 10월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시의원 간담회 개최 |
| | 8월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
| | 2월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7명) |

| | | |
|------|------|-----------------------------|
| 2020 | 11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 | 10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2회차) |
| | 2~8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 | | |
|------|-----|---|
| 2019 | 12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
| | 8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1회차) |
| | 6월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선출(청소년의원 26명) |
| | 4월 | 타 시도(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벤치마킹 |

| | | |
|------|----|---|
| 2018 | 9월 |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 | 8월 |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 교육 |
| | 7월 |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교류 |
| | 5월 |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 | 3월 |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27명) |

| | | |
|------|-----|---|
| 2017 | 12월 |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평가회 개최 |
| | 9월 |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 | 8월 | 국회체험 |
| | 7월 |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30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
| | 1월 |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 (고양시조례 제1834호 / 2017.1.13.) |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제안 정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30인 / 멘토 6인

-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 문화상임위원회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토크(TalkTalk)'
- 안전상임위원회 바닥신호등 설치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5인

-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카페 증설
- 안전상임위원회 공용 자전거 활성화,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3인

- 교육상임위원회 과학실험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활성화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 방안
- 안전상임위원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2인

- 교육상임위원회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
- 문화상임위원회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환경축제-
-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 인권상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18인 / 멘토 5인

-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법·경제 축제 지원
- 문화상임위원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 안전상임위원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
- 인권상임위원회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4인

- 교육상임위원회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 문화상임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방안
- 인권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해결방안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 18인 / 멘토 2인

- 의장(직권 발의) 고양시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 안전상임위원회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 의회프로젝트팀 청소년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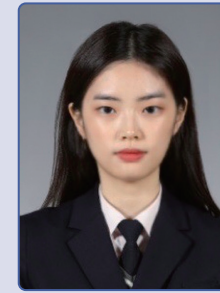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 의회 | 임기 | 최초 의원 수 | 의장단 | 의회 사무국 |
|----|--------------------|---------|-------------------|----------------------|
| 1대 | 2017년 | 29명 | 의장 박기병 부의장 유정은 |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 2대 | 2018년 | 24명 | 의장 노하영 부의장 강유수 |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 3대 | 2019년 6월 ~2020년 | 26명 | 의장 박정원 부의장 김수빈 |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
| 4대 | 2020년 6월 ~2021년 | 22명 | 의장 김민제 부의장 최보근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
| 5대 | 2022년 | 24명 | 의장 김가영 부의장 조해원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
| 6대 | 2023년 | 26명 | 의장 조해원 부의장 박채야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
| 7대 | 2024년 | 18명 | 의장 김다인 부의장 이승현 |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사진



제1대 의장
박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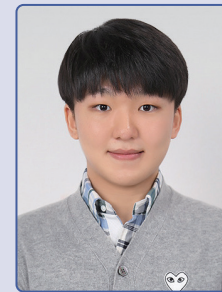
제1대 부의장
유정은



제2대 의장
노하영



제2대 부의장
강유수



제3대 의장
박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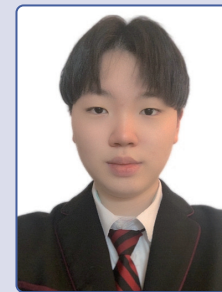
제3대 부의장
김수빈



제4대 의장
김민제



제4대 부의장
최보근



제5대 의장
김가영



제5대 부의장
조해원



제6대 의장
조해원



제6대 부의장
박채야

제6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청소년 의원

| 연번 | 소속 | 성명 | 학교 | 학년 | 성별 | 지역구 | 구분 |
|----|---------|-----|----------|-----|----|------|-------|
| 1 | 제7대 의장 | 김다인 | 고양국제고등학교 | 1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2 | 제7대 부의장 | 이승현 | 서정고등학교 | 2학년 | 남 | 덕양구 | 교육위원회 |
| 3 | 교육상임위원회 | 곽지유 | 풍동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위원장 |
| 4 | 교육상임위원회 | 양은호 | 풍동중학교 | 2학년 | 남 | 일산동구 | 부위원장 |
| 5 | 교육상임위원회 | 구승아 | 양일중학교 | 1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6 | 교육상임위원회 | 조하은 | 저동중학교 | 1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7 | 교육상임위원회 | 이루리 | 풍동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8 | 안전상임위원회 | 최아인 | 덕은한강중학교 | 1학년 | 여 | 덕양구 | 위원장 |
| 9 | 안전상임위원회 | 권세린 | 백신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부위원장 |
| 10 | 안전상임위원회 | 서윤아 | 신원중학교 | 1학년 | 여 | 덕양구 | - |
| 11 | 안전상임위원회 | 이은교 | 도래울중학교 | 1학년 | 남 | 덕양구 | - |
| 12 | 안전상임위원회 | 주하은 | 백신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13 | 인권상임위원회 | 서예림 | 목암중학교 | 2학년 | 여 | 덕양구 | 위원장 |
| 14 | 인권상임위원회 | 김태연 | 저동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부위원장 |
| 15 | 인권상임위원회 | 김민기 | 광성드림학교 | 2학년 | 남 | 일산서구 | - |
| 16 | 인권상임위원회 | 신주은 | 백석중학교 | 2학년 | 여 | 일산동구 | - |
| 17 | 인권상임위원회 | 조주연 | 백석중학교 | 2학년 | 남 | 일산동구 | - |

청년 멘토

| 연번 | 소속 | 성명 | 학교 | 학년 | 성별 | 학과 |
|----|---------|-----|-------|-----|----|-------------|
| 1 | 교육상임위원회 | 홍승우 | 중부대학교 | 2학년 | 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 2 | 안전상임위원회 | 김민재 | 동국대학교 | 2학년 | 남 | 정치외교학과 |
| 3 | 인권상임위원회 | 백채린 | 강원대학교 | 2학년 | 여 | 신소재공학과 |



제2편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

제1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29

교육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031

안전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037

인권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1) 047

인권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2) 057

의회 프로젝트팀 제안 정책 063

제2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067

제1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제안 주제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제안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명단 곽지유, 양은호, 구승아, 이승현, 조하은

제안 주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제안상임위원회 안전상임위원회

의원명단 최아인, 권세린, 서윤아, 이은교, 주하은

제안 주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제안상임위원회 인권상임위원회

의원명단 김태연, 김민기, 신주은, 서예림

제안 주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제안상임위원회 인권상임위원회

의원명단 조주연

제안 주제 청소년 디지털 범죄로부터 살아남는 법 청소년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상임위원회 의회 프로젝트팀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의원명단 김다인, 이승현, 곽지유, 최아인, 서윤아

교육상임위원회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 | |
|-------|-------------------------|
| 의안번호 | 2024-02 |
| 의안종류 |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
| 소관위 | 교육상임위원회 |
| 발의연원일 | 2024년 9월 21일 |
| 발의의원 | 곽지유, 양은호, 구승아, 이승현, 조하은 |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으로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대표적으로 농수산 생태계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폭염, 집중호우, 대기오염 등이 현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강남역 일대와 신림동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최근 환경문제는 '기후위기'라고 불리우는 만큼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지난 2015년 기후변화협정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2050년 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맞춰야 하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각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독일과 같은 일부 환경 교육 선진국가는 이미 청소년 대상의 생태 교육 과정을 필수로 넣고 있으며, 친환경 실생활을 청소년시기부터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기존 강의식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 탐조 방식과 같은 현장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환경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생태학교'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하게 한다. 참여형 교육의 강점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동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고양시의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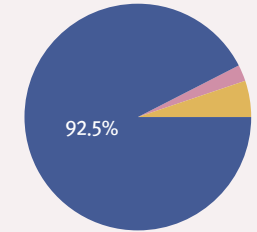
또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응답자 322명)에 따르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92.5%,(별첨1)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시민이 91.9%(별첨2)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의 대다수는 교육의 필요성에도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의 첫단추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절실하다.

별첨1.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지도

1. 현재 환경(이하 기후/생태계/에너지 모두 포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1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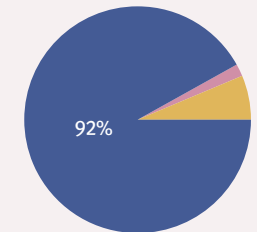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별첨2. 청소년 환경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

3.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323개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특례시 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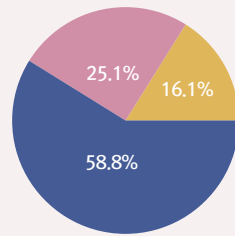
현재 고양시에는 '고양시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가 존재하며,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책 방향이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환경교육센터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자율 신청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보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을 넘어서, 고양시에 있는 녹지나, 산림 등 실제 생태 장소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탐조하는 형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및 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기후변화 특화 프로그램 강화를 과제로 설정한 만큼 현재 교육보다 더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별첨1),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8.7%(별첨3)에 그쳐 기존 환경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별첨3. 청소년 환경교육 실태

2. 초, 중, 고등학교에서 환경과 관련된 수업(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월 1회, 1학기 이상 환경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323개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양시 청소년생태학교

가. 실습형 환경생태교육 강좌 개설

생태환경교육의 핵심은 사회공동체로서의 환경 보존의 의무와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활을 습관화하여 실질적인 환경 보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강의식 실습에서 현장 탐조의 참여형 강좌로 형태를 변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시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터전(고양시)에서 환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을 직접 탐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의 대표 녹지 공간인 장항습지, 정발산, 고봉산과 각종 지역 하천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기록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단순 체험 형태의 1회성 탐조가 아닌 최소 6개월 이상의 긴 탐조 프로그램을 통해 녹지 공간의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 각 동식물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직접 파악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1년 단위로 고양시가 보존에 힘써야 하는 동식물 '종' TOP10을 선정하여 고양시에 제안하는 파생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 - 생태학교 자체는 환경교육센터 내 프로그램 형태로 기획한다. - 생태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치'하여 학사 일정을 구성하거나 예산 집행을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청소년에게 맡긴다. (경기도 꿈의 학교와 같은 형태로 운영)- 생태학교 내 필수 교육과정으로 현장 탐조 프로그램을 넣는다.

나. (별도 제안) 학교별 태양광 협동조합 개설

생태학교는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참여 시간이나 프로그램, 환경 보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태학교 소속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태양광 협동조합을 구성해 에너지 자립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학교 태양광 설치'가 있다. 단순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맡겨 직접적으로 에너지 흐름을 직접 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 초기 설치 비용이 크기 문에 이에 대한 지원만 이뤄진다면 에너지 자립 선도 교육을 할 수 있다.

6 사업효과(기대효과)

환경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의식을 높일 것이며,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생태학교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기대된다.

7 소요예산(사업비)

- 조레나 생태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하고, 고양시장에게 해당 기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최소 7천만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예정)
- 환경교육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매우 적으나 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참고 근거
 - 선장포 철새서식지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4억 6,000만 원 규모
 - 서울시 마포구 환경센터(위탁운영)개설 비용 약 7천만 원
 - 서울시 환경교육 예산 20억
 - 서울 시립 청소년센터의 한 해 예산이 평균 30억 원
 - 환경부 차원의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금은 0원

안전상임위원회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제안 정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 | |
|-------|-------------------------|
| 의안번호 | 2024-03 |
| 의안종류 |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
| 소관위 | 안전상임위원회 |
| 발의연원일 | 2024년 9월 21일 |
| 발의의원 | 최아인, 권세린, 서윤아, 이은교, 주하은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양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41,983대이다. 특히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1990년 0.25대에서 2019년 0.96대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중 특히 일산신도시의 경우 19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를 기준으로 30년이 넘는 노후 1기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즉 30여 년 전에 지어진 주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양시 내 신규 택지개발 등 인구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차량 보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주차난) 해결은 우리 시 교통 문제 타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주차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제31조의2'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 수혜 대상이 노인, 임산부에 한정되어 있어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교통약자 전반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요구된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자동차 등록 대수, 가구당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양시 내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116.9%로 10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관련 민원과 불법 주정차가 난립하는 현황에 대한 타개 점을 찾는 데 취지가 있다.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 대다수이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상을 위한 '교통약자 주차 배려' 정책은 다소 미비한 현황이다. 이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본 정책의 목적은 고양시 내 전반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 '쾌적한 생활 기반 형성', '교통약자 배려를 통한 동행 복지 실현'이라 할 수 있다.

3 사업대상(수혜자)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든 고양시민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가. 한정적인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현행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운영하고 있다. 여러 조항 중에서 본 상임위는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자 등 이미 사회적·객관적으로 교통 약자로 인정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문구가 없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거동이 불편한 자도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된다.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과 같은 교통약자 배려 정책은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황이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초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 이른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규 제정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역시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여성우선·어르신 주차구역을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가족) 배려 주차구역과 같은 명칭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고양시 또한 기존의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를 더 늘려 주차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여전히 부족한 주차 공간

본 상임위에서 지난 5월 약 한 달간 고양시민 약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약 56.3%가 고양시 내 '주차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낀 점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물리적인 주차 공간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후곡·백마학원가, 식당가 등 상업 밀집 지역, 원당 지구 등 노후화된 구역 등에서 주차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임으로써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절감된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했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별도 첨부)으로써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확대 대상으로는 현행 어르신(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에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다. 조례 개정과 함께 실제 주차 현장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에게 지급되는 주차 표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가. 영유아와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정의

- 1) 영유아: 만 6세 이하의 아이
- 2) 거동이 불편한 자: ① 신체적 제한(근골격계, 신경계 또는 기타 신체적 장애로 걷기, 앉기, 서기, 기본적인 이동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 ② 보조기구 필요(휠체어,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사람) ③ 의학적 조건(만성 질환이나 기타 건강 상태로 인해 체력과 이동성이 크게 저하된 사람) → 기존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2 1항 개정안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법 제6조 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호의 주차장에는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혜 대상에게 지급할 주차 표지에 대한 제언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산부 배지와 유사하게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를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주차 표지는 기본적으로 수혜 대상인 임산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픽토그램과 함께 고양시 심볼을 더하여, 고양시에서 지급·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공간) 개방

앞서 언급한 물리적인 ‘주차장, 주차구역’의 부족 문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해결할 방안은 바로 대형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차장을 새로 짓는 문제는 확실하고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부지확보 문제와 더불어 예산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본 상임위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상임위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유휴 공간을 일과시간 외(공휴일 포함)에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방 정책은 이미 서초구, 수원시, 부천시 등에서 학교 측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시 내에서도 저동고등학교 등 약 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관공서를 통해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홍보도 많이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이 다소 낮은 현황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적인 시설의 일과시간 외 남는 주차 공간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추가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상임위에서는 저동고등학교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 확장·홍보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체계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한다. 즉 기존 시행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 공유 대상 주차장 확대

가장 우선으로 무료 공유 대상 주차장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 후곡·백마 학원가, 밤리단길을 비롯한 여러 상업 밀집 지역, 원당 지구 등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약 5개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해당 정책에 참여할 학교를 더욱 늘리고, 구청·시청·행정복지센터·지역 도서관·복지관·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이들의 일과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와 달리 관공서나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장 개방 정책을 시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이용자 접근성 강화

현재 고양시는 2021년부터 주차 공유제 사업을 시작하여 저동고, 율동초, 원당초, 가람초 등 학교 주차 시설 5개교, 민간 주차 시설 1개소 등을 확보해 약 178면의 공유 주차장을 조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 현황이다. 실제로 율동초등학교에서는 총주차장 34면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은 10대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절감된다. 따라서 무료 개방 공유 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양시민은 사전에 관공서를 통해 허가를 받는 배타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비원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무인 시스템의 경우 기계를 통해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개방된 주차장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용 가능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차를 하지 않는 경우, 무료 개방 주차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타 행위로 학교 및 공공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 또는 해결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 ① 범칙금 부과
- ② 사용 제재
- ③ 주차 감독관 배치 혹은 무인 관리 시스템 설치 지원
- ④ 사용 시간 제한 등

정리하자면, ①무료 개방 주차장의 범위를 학교와 더불어 공공시설로 확대 ②사전 등록자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 강화 ③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6 사업효과(기대효과)

- 교통약자가 주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편리한 주차장 사용 및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
- 대중교통 교통약자 배려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가용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수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소요예산(사업비)

-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사용 대상자에게 지급할 주차 표지 신규 제작 및 인쇄·발급 비용
 - 인쇄 업체 선정 및 견적에 따라 상이함.
 - e.g. UV 저항성 비닐(방수) 재질, 오프셋 인쇄, 유광 또는 무광 코팅 기준 대량 인쇄(1,000장 기준) 약 20만 원 ~40만 원
-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확대 설치 시 필요한 도색 비용 등
 - 주차구획 확대 규모에 따라 상이함.
 - e.g. 주차 한 칸 기준 재료비 약 1만 원, 인건비 약 5만~10만 원, 기타 비용 약 1~2만 원
- 학교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시, 주차 관리 요원 고용 비용 혹은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업체에 따라 상이함.
 - e.g. 물품 구입 및 설치비 : 차량번호 인식기, 무인 요금 계산기, 차량 검지기, LOOP COIL, 통신제어장치, 케노피, 광네트워크 장치, 전광판 등을 설치해야 함. (이미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의 경우 그대로 활용) → 설치 비용 약 5천만~1억 원 / 연간 유지보수 비용 약 3천만~4천5백만 원

8 첨부자료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8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아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2024-03 |
| 발의연월일 | 2024. 9 21 |
| 발의의원 | 최아인 의원 등 5명 |
| 찬성의원 | 최아인 의원 등 5명 |

▶ 제안이유

- 교통약자란 행동상의 부자유함으로 인하여 공공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모두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
- 그러나, 현행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의2에 따르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의 수혜 대상이 노인, 임산부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교통약자의 개념이 국소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영유아(혹은 영유아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다른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조례 제31조의2를 일부 개정하여, 교통약자 배려 확대를 통한 주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수혜자인 어르신, 임산부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 ‘거동이 불편한 자’를 추가하여 교통약자 복지 정책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함(안 제31조의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예산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고양시 관련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산부”를 “임산부, 영유아(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동반한 자, 거동이 불편한 자(신체적 또는 의료적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한 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 <p>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는 어르신(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임산부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역(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⑧ (생략)</p> | <p>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 <p>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임산부, 영유아(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동반한 자, 거동이 불편한 자(신체적 또는 의료적 제한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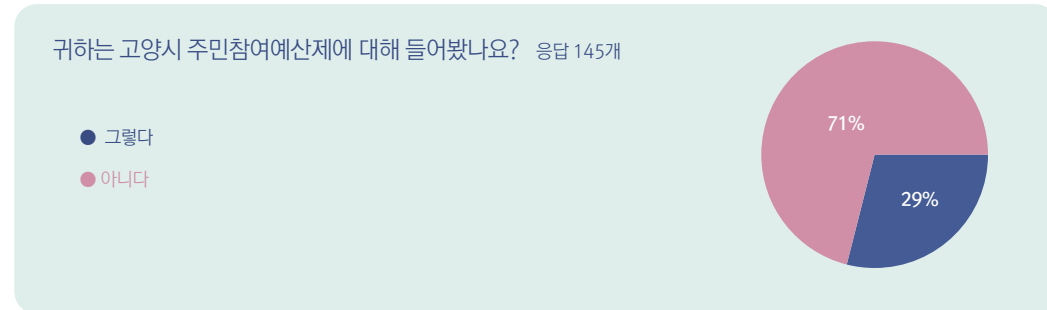
| | |
|-------|--------------------|
| 의안번호 | 2024-04 |
| 의안종류 |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
| 소관위 | 인권상임위원회 |
| 발의연원일 | 2024년 9월 21일 |
| 발의의원 | 김태연, 김민기, 신주은, 서예림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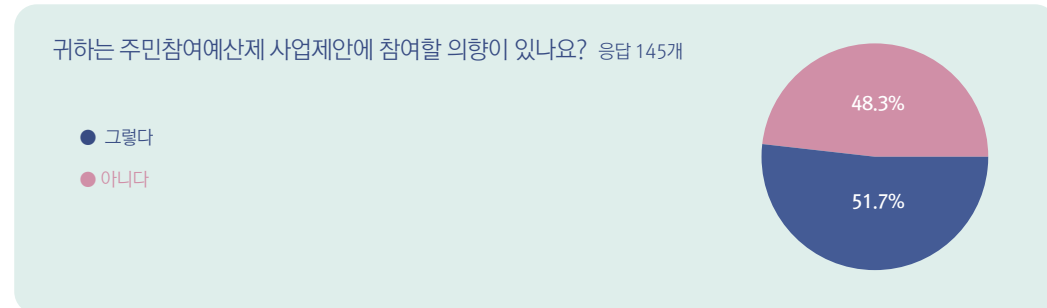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 참여예산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낮은 인지도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에 따른 낮은 참여 의향이 나타남.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관내 청소년 145명 참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음. 또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별첨1). 이처럼 응답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51.7%, ‘아니다’ 48.3%로 나타나 응답자의 반 이상이 사업제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별첨2).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좋은 매체와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별첨1.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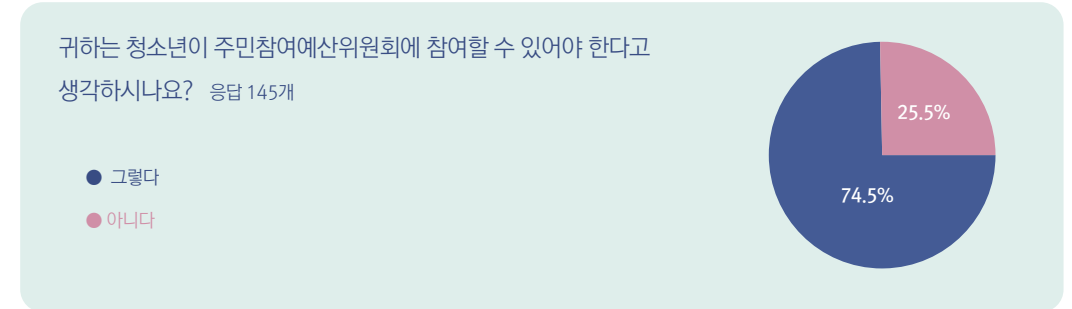


별첨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의향



- 아울러,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74.5%, ‘아니다’ 25.5%로 나타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임(별첨3). 이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예산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별첨3.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시민 의향



- 고양시와 달리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함남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운영조례 제23조와 24조에 따르면, 운영 효과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주민참여 확대 노력)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 보장이 필요함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특례시 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미비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요일이 흔히 공무원의 근무 일자(평일) 내에서 결정되어 학교 재학 청소년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또한, 관련 법령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예산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경기도고양시조례 제 2818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제안 / 별도 첨부)

- 1)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
 - 가) 조례 개정을 통해 12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 나) 공개모집(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누구나 예산교육 온라인 수료 후 신청 가능) 후 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
- 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 활동 내용
 - 가) 청소년 예산학교(청소년 눈높이 예산교육, 위원 활동에 요구되는 기본 소양교육 등)
 - 나) 청소년 예산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 다)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 3)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 가) 청소년 중 대부분이 학생인 것을 고려하여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회의 진행
 - 나) 위원의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적용하여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 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예산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천

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청소년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확대

- 1)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횟수 확대
 - 다양한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학교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학생 접근성 강화

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슛폼(Short-Form) 공모전 개최

- 1) 전국 청소년 대상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슛폼(Short-Form)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가) 공모전 연간 1회 진행
- 나) 공모전 당선작을 주민참여예산 홍보 시 활용 (관내 학교 연계 홍보 추진)
- 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함으로써 특화된 맞춤형 홍보 진행
- 라) 시상은 고양시장상을 수여하고, 대상은 100만원(1편), 최우수상은 50만원(1편), 우수상은 30만원(2편), 장려상은 10만원(2편)으로 상금 지급

6 사업효과(기대효과)

청소년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책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년이 배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지금 청소년이 시의 주인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청소년이 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다.

7 소요예산(사업비)

- 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 산출내역: 100,000원×20명×20회=40,000,000원
- 예산학교 강사비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 산출내역: 250,000원×181개교(관내 학교수)=45,250,000원
- 공모전 및 당선작 홍보비(포스터 제작, SNS 홍보 등)
 - 산출내역: 500,000원×2회=1,000,000원
- 공모전 당선작 부상금
 - 산출내역: 1,000,000원(대상)+500,000원(최우수)+600,000(우수)+200,000원(장려)=2,300,000원

8 첨부자료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8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연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2024-04 |
| 발의연월일 | 2024. 9 21 |
| 발의의원 | 김태연 의원 등 4명 |
| 찬성의원 | 김태연 의원 등 4명 |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주민참여 확대 노력)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함.
-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미비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요일이 흔히 공무원의 근무 일자(평일) 내에서 결정되어 학교 재학 청소년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또한, 관련 법령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고양시와 달리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하남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 구성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예산학교 확대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솜품 공모전 개최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예산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고양시 관련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설치 및 구성 등)

-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장애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은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2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 · 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심의 · 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3조(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p> <p>제7장 보칙 〈신설〉</p> | <p>제23조(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위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p> <p>제7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27조(설치 및 구성 등)</p> <p>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장애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은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p> <p>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신설〉

〈신설〉

〈신설〉

제27조·제28조 (생략)

제28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2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제31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 | |
|-------|--------------|
| 의안번호 | 2024-05 |
| 의안종류 |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
| 소관위 | 인권상임위원회 |
| 발의연월일 | 2024년 9월 21일 |
| 발의의원 | 조주연 |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이 제안은 친구들이 아프리카 흑인계열 외국인 노동자를 놀리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수준수준하는 정도의 유치한 수준의,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말하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놀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니,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는 생각보다 심각하여, 그 점을 개선하려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일터에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지원, 사회 내 관습과 문화 이해 습득을 돕고 재산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3 사업대상(수혜자)

일터에서 인권침해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음에도 취직과 재산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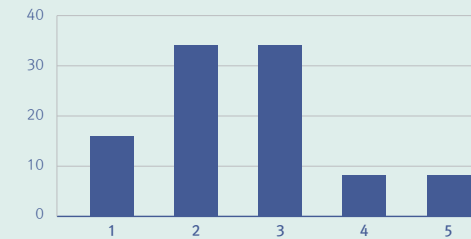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법무부는 2022년 1만 9,718명, 2023년에는 4만 674명을 계절 이주 노동자로 배정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동기에 견주어 77.4% 늘어난 4만 9286명이 131개의 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근로자 제도는 현장에서 각종 노동권 위반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하거나 근로계약엔 없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이탈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집중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탈을 막기 위하여 큰 액수의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등 인력송출 중 개인, 일명 브로커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글로벌해지고 있으

나, 가수나 유명인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고양시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는 2에서 3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별첨1).

별첨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민 관심 수준

3. 고양시 시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100개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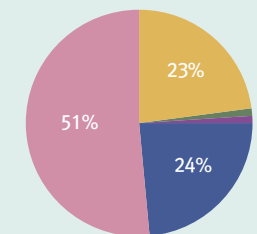
위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 이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시 처벌하고, 그것을 검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회사 내에서 차별적인 태도를 막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 교류 지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는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노동 상담과 방역, 안전 물품을 지원 하는 등 노동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은 부족하다고 느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CEO와 근로자 사이에서 관리하는 등의 활동도 시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사업 내용 중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에 적응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지 감시하는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높으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 이므로,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별첨2).

별첨2. 외국인 노동자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

5. 현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응답 145개

-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교류 지원을 늘려야 한다.
- 차별적인 태도를 막는 법이나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 작업중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전부
-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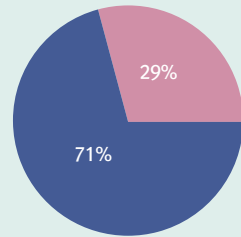
6 사업효과(기대효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1차 설문조사 결과 71%가 자원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고양시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고 올바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별첨3, 별첨4).(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활동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재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별첨3. 외국인 노동자 봉사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의향

9.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봉사 사업이 생긴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응답 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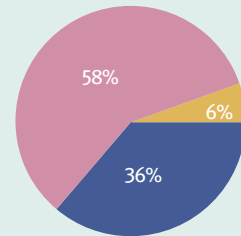
- 예
- 아니오



별첨4.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활동의 효과에 대한 시민 의견

10.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된 급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생겼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00개

-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도움이 된다
- 현재와 같다
- 나빠진다



7 소요예산(사업비)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인력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비용), 교육 및 훈련 비용(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비용), 자료 및 자원 구매비용(교육 자료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 활동비용(다양한 활동을 위한 비용), 운영비용(사무실 임대, 사무용품 구매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으며, 위 조례는 사업만 추가 하므로 현재에서 1,500~2,000만 원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프로젝트팀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회 프로젝트팀 제안 정책

청소년 디지털 범죄로부터 살아남는 법

청소년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 | |
|-------|------------------------------|
| 의안번호 | 2024-06 |
| 의안종류 |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
| 소관위 | 의회 프로젝트팀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
| 발의연원일 | 2024년 9월 21일 |
| 발의의원 | 김다인, 이승현, 박지유, 최아인, 서윤아 |

청소년 디지털 범죄로부터 살아남는 법

청소년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사이버 범죄란, 통신과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에는, 사이버 성범죄, 통신 매체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욕설 사용, 익명 악플, 따돌림 등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40.8%에 달했다. 청소년들의 주요 가해 동기는 '보복'이었다. 유형 중에선 언어폭력이, 혐오 표현 비중은 신체·외모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사이버 교육 주제와 대상을 확대해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경우 주로 복수심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행사한다고 해,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가해 동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은 2022년 13.3%에서 2023년 17.2%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놀이로 생각하며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나선다면, 앞으로 더 심해질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디지털범죄 중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는 범죄는 당연히 성범죄이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일례로 2021년 10월 20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약 20%는 청소년으로, 그 피해/가해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상담 센터들도 존재하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는 이들은 모두 성인이다. JTBC 2024년 7월 4일자의 기사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10대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기 보다는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친구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친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런 시기에는 또래 세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는 것보다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또래에게 상담을 받을 만한 수단은 거의 없을 뿐더러 관련 인식도도 미비한 상태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정책제안

가. '청소년 디지털 폴리스' 양성

세계일보 2021년 5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최대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 못해서'였다고 한다. 이어 '재미나 장난'(19%), '호기심'(19%), '충동적으로'(16%), '남들도 하나따라해보고 싶어서'(10%), '연애하고 싶어서'·'음란성 문자를 함께 공유'(각 5%) 등의 순이었으며,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등 그나마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범죄 가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범죄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범죄 행위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이유는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 윤리'란, '디지털을 활용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윤리'는 청소년의 디지털 범죄 가해/피해율의 감소 더불어 청소년 디지털 역량의 향상에도 기능을 한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디지털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 디지털 폴리스' 양성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12월 한달 간 공고를 내어 지원자를 모집하고, 1월 중 면접을 실시하여 각 학교급 별로 인원을 선발, 2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3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는 팀을 구성하여, 혹은 개인으로 매달 캠페인 활동 참여, 디지털 윤리 관련 카드뉴스 제작, 디지털 교육 진행 등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8월에는 중간평가회를 열어 각자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12월에 성과공유회를 열어서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이 마무리 된 인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양성 과정으로 한다. 위 사안들은 각 시·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진행한다.

나.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 사이트' 개설

디지털배움터 웹사이트에 의하면 정보화 교육내용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형태 변화, 기술발전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형태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식이 절감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한다.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사이트란,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물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직접 동나이대의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제를 상담하는 사이트이다. 한겨레 2019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윤군은 또래 친구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친구들의 내밀한 감정선을 살핀 뒤 아픈 마음을 경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동나이대의 또래 친구들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낸다. 이에 착안해,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 사이트 내에서 '또래상담' 란을 만들어 디지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효과

가. '청소년 디지털 폴리스' 양성

-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함께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자기주도성 및 책임감, 협력적 소통능력 등의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
-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은 뒤 교육을 해주는 입장에 서면서 지식 재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디지털 윤리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나.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 사이트 개설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 사이트 내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용적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청소년이 사이트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르고 또래를 상대로 상담 등을 진행함으로써 또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디지털안전지킴이' 사이트 내에서 청소년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신청 및 진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회복에 기여한다.

제2장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 연번 | 소속 | 의원명 | 학교 | 지역구 | 발언 주제 |
|----|---------|------------|------------|--------------|-------------------------------|
| 1 | 교육상임위원회 | 곽지유 | 풍동중 | 일산동구 |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
| 2 | 교육상임위원회 | 양은호 | 풍동중 | 일산동구 | 고양시의 버스 배차 간격 조절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 3 | 교육상임위원회 | 이승현 | 서정고 | 덕양구 | GTX-A 연계 교통 방안 |
| 4 | 교육상임위원회 | 구승아 | 양일중 | 일산동구 | 도서관 예산 증진 |
| 5 | 안전상임위원회 | 서윤아 | 신원중 | 덕양구 |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
| 6 | 안전상임위원회 | 권세린 주하은 | 백신중 백신중 | 일산동구 일산동구 |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 |
| 7 | 인권상임위원회 | 신주은 | 백석중 | 일산동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참여 강화 |
| 8 | 인권상임위원회 | 조주연 | 백석중 | 일산동구 |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

교육상임위원회 **곽지유**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곽지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환자원 회수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의 수거와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해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자원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란, '네프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공지능 탑재 로봇입니다. 단순히 재활용 쓰레기통이 아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분류 작업이 진행되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재활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본 로봇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내 이 로봇의 수는 단 3곳뿐입니다.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로, 2022년 기준 전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인구수의 절반 정도인 안양시에는 1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례시로서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데도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매우 많습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은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통계 방식으로 인한 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활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률 저하로 이어지며,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저는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수거함으로써, 분류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줄이고, 수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재활용 공정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또한 가능합니다. 재활용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재활용품 관리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므로,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본 로봇이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능을 통해, 시민들은 단순히 재활용품을 로봇에 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재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 보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도입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확대를 고양시에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재활용률이 저조한 현실의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버스 배차간격 조절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교육상임위원회 **양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양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버스 배차간격 조절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곧 시민들의 편의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버스 배차간격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이 길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버스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잡 시간대에는 오히려 버스가 과도하게 배치되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버스를 놓쳐서 친구와의 약속에 30분 이상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차간격 최적화****입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버스 이용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요에 맞춘 배차간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단축시키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 인프라의 개선****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버스 전용차선을 확대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저상버스와 같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와 소통의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의 대중교통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스 배차간격 조절과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TX-A 노선 연계 교통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

교육상임위원회 이승헌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분들과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겸 부의장 이승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고양시에 올해 말 개통할 GTX-A 노선의 연계 교통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GTX, 풀어서 말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경기도 지역의 서울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계획된 노선이며, 현재 수서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심 차게 개통하는 GTX-A 노선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로,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GTX-A 노선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이용객은 26만 명으로 국토부 예측 62만 명의 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그쳐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으로는 연계 교통 방안의 부족과 삼성역, 서울역의 미개통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역은 2028년, 서울역은 운정 방면 2024년, 수서 방면 2026년 개통으로 예정되어 적어도 2028년 이후에는 해결될 문제지만, 연계 교통 방안의 부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총 세 가지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곡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 정차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1000번, 1200번, 1500번 등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는 대곡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빨간색 버스로 유명한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3800번과 9700번을 제외하면 대곡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버스를 모두 광역급행버스나 직행좌석버스입니다. 또한 1000번은 전국 광역급행버스 이용객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1500번 역시 고양시 시내버스 중 이용객 3위를 차지한 만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버스들은 이미 대곡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을 지나고 있고, 대곡역은 GTX-A 노선을 제외하더라도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환승이 가능한 고양시 유일의 트리플 환승역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시행 시 교통정보시스템 및 안내방송 반영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양시민의 확실한 편익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GTX-A 노선 정차 시간표와 환승 시간표의 연계를 제안합니다. GTX-A 노선의 정류장은 상당히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버스로 환승 시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철 노선 중에서도 3호선을 제외한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은 배차간격이 불안정하고 긴 편이라 열차를 한 번 놓칠 경우 환승에 드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표 연계 시에는 환승 기회를 놓쳐 허비되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고양시민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킨텍스역과 킨텍스 전시장을 잇는 지하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킨텍스역의 경우 그 이름과 다르게 킨텍스 전시장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킨텍스 전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킨텍스역과 킨텍스 전시장을 잇는 지하보도를 설치한다면, 킨텍스 행사 관람을 위해 고양시를 방문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킨텍스를 통한 킨텍스역의 수요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분들과 내빈 여러분, GTX-A 노선의 사업비는 2조 7,000억 원에 달할 만큼 대형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진행될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도권 교통 혁명의 시작점으로 역사에 남을 중요한 노선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지으면 그만”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연계 정책을 꾸려 시민 편의를 최대한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제가 제안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107만 고양시민의 편의를 위해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예산 증진

교육상임위원회 구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구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도서관 예산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 예산 증진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도서관 예산 증대는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2016년 9월, 경기도 도의원의 예산지원 확인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의 도서관은 경기도 시군 31개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고양시민 107만 명 중 회원 수는 56만 명으로 회원가입률이 55%에 달해 경기도 1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평가되는 만큼 시민들의 도서관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도서관의 운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1관당 사서 수는 2.9명으로 경기도 최저이면서, 시민 1인당 도서관구입비 역시 경기도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1인당 도서관구입비는 약 1,200원으로, 이는 장서 구입 예산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7%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감사원에서는 도서관의 장서 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권장하지만, 고양시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를 신청해도 지연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진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예산 증진을 실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산 증진을 통해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예산 증진으로 더 많은 직원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자 증가로 인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정보 제공,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산 증진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독서 공간, 학습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예산 증진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의 개선뿐만 아닌,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교육, 문화, 사회적 통합, 디지털 접근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 증진은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속 구승아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안전상임위원회 서윤아 의원

존경하는 고양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상임위원회 소속 서윤아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덕양구 오금동의 2,200세대의 한 주택 단지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최소 약 1.7km에서 3km로, 평균 초등학교 걸음으로 최대 약 1시간 정도인 주거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는 버스조차도 한 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버스의 배차간격도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이며, 학교 앞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을 자가용으로 태워주시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교 주차장은 좁아 학교 주변 불법 주차차 수가 늘어나면서 도로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고양시에서 통학버스를 여러 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의 내유초등학교는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 통학버스를 2014년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유초등학교의 고양시 지원 통학버스 운행 수는 시작 연도인 2014년도에 2대, 2017년도에 5대, 2023년도에 7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는 ‘파프리카’라는 중·고등학교 전용 통학 순환버스와 ‘천원 택시’가 존재합니다.

‘파프리카’는 파주 18개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통학버스입니다. ‘경기버스정보’, ‘카카오톡’ 등의 앱을 통해, ‘파프리카’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원 택시’는 파주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파주시청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용 희망자는 읍면 사무소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천원 택시 등록 절차를 완료한 뒤, 신청 당시 지정했던 전화번호의 파주시 브랜드콜로 천원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천원 택시 첫 시행 연도인 2019년에는 6개 읍과 읍 12개 마을 주민 810명이 신청하였고, 올해 2024년 7월 초에는 운행 마을 57곳을 63곳으로 확대해, 6개 마을을 추가 운영합니다.

첫째, 내유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파주시의 ‘파프리카’ 통학 순환버스와 같은 사전 버스 시간표 배부 및 좁은 배차 가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전용 통학 버스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파주시의 ‘천원 택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안전상임위원회 권세린 의원, 주하은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상임위원회 권세린, 주하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통해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쓰레기통 정책을 살펴보니, 이들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진국으로서 고양시가 이러한 쓰레기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335개의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인구 대비 매우 부족한 숫자입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학원가, 학교 앞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기 힘들어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거리 쓰레기통을 증설해야 합니다. 인구 대비 적절한 수의 쓰레기통 증설로 시민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라는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아,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쓰레기통의 위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길거리 쓰레기통은 모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통을 설치하여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쓰레기통은 있으나 마나 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정류장, 학원가, 학교 앞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의 위치를 옮기거나 증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쉽게 찾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쓰레기통 사용 및 쓰레기 배출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통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공장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및 무단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리고,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출처] 김재형, 「디자인 한 스펀' 넣은 쓰레기통 덕분에 도시가 예뻐졌어요」, 「내 손안에 서울」, 2024.04.16.



[출처] 고은지, 「서울 거리 쓰레기통의 변신...도심 15곳 30개 시범설치」, 「연합뉴스」, 2024.04.28.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레기통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설치되고 제대로 관리된 쓰레기통이 있어야 도시가 깨끗해 보이고 정돈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위 사진은 새롭게 설치된 서울의 쓰레기통입니다. 환경공무원이 내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업자의 손목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벼운 재질로 제작하고 쓰레기통 용량은 75L(리터)부터 100L(리터)까지 수용이 가능한 크기라고 합니다.

기존 쓰레기통은 짙은 회색에 네모 모양이 대다수입니다. 쓰레기 투입구가 다소 좁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구조이며 자칫하면 손에 이물질이 묻기가 쉽습니다. 또한 쓰레기통 윗부분이 평평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상판에 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쓰레기통 입구가 좁았던 이유 중 하나로는 일부 시민들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새롭게 디자인된 쓰레기통이 배치될 경우 시민의식을 발휘해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높여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나 행정 강제 조치를 통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고양시 길거리 쓰레기통 배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보호,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 제안 사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고양시가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상임위원회 권세린, 주하은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참여 강화

인권상임위원회 신주은 의원

존경하는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신주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청소년 중 한 명으로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고양시는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상 예산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보통, 공무원의 근무 일자인 평일에 진행되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의 일상을 보장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예산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양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모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입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학생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학생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가까워지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춰 예산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산학교의 경험이 위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양 교육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책정 등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지금, 청소년이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청소년이 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배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인권상임위원회 조주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상임위원회 소속 조주연 의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간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벗어나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이 세상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고된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적절한 관리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권침해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 농정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많은 수의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난무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심지어 노동자의 여권을 뺏거나 근로 계약엔 나와 있지 않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떼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해외와 교류가 많아지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왜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권을 착취당하며 피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마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피해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 물품을 전달하거나 취업상담을 받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은 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상담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회사의 문화나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회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추가하고 활성화시켜 지금 이 순간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피해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로 나가서 인권침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세계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편히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삶의 힘듦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인권상임위원회 조주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편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에필로그



청소년의원 의정활동 소감 나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080

청년멘토 소감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087

나에게 청소년의회란?



의장 김다인
고양국제고, 1학년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란 저에게 있어 고양특례시 모든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이며, 저 자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들만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기꺼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제게 많은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심어 주었고, 제가 한걸음 더 성장하게 된 데 없이 소중한 기회이자 발판이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은 많은 것들을 새롭게 담아내고 그려 낼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또한 한껏 끌어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충분하게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의미 깊은 소통과, 협력의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장이라는 무겁고 소중한 너무나도 과분한 이 자리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게 기꺼이 허락 하시어 수행하게 됨에 있어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의 마음의 소리들을 한 번이라도 더 놓침 없이 담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세심히 검토하며, 제대로 계획하여 더욱 새롭고 의미 깊고 발전성 있는 정책 제안들로 승화시켜 목소리를 높이고 한가지 한가지씩 차곡차곡 이루어 내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더욱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임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과의 시간들을 함께하며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배우고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며 리더십과 협력적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반적인 다양한 역량들 또한 더욱더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조금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던 제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울타리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이며 진취적이신 많은 분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욱 깊이 있게 사고하고 한 번 더 살펴 걸으며 그들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란히 걷는 법을 깨우칠 수 있었던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았기에 제 스스로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폭과 시야의 범위가 너무도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의회와 함께 이 시간을 걷게 되며 제 주변 모든 것들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두고 바라보고 담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넓어진 마음의 폭과 시야의 폭 그리고 생각의 깊이를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긴 시간 논의하고 제안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지니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며 그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경험들로 말미암아 우리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 청소년의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에너지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작은 힘이나마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내고, 발전을 이루어 가며 고양특례시 모든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되어 열정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속에 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려 합니다. 언제나 함께이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고양특례시 모든 청소년의 걸음걸음을 한껏 응원드립니다.

나에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즐거운 여정이었다. 6대 청소년의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에 참가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때부터 예비 의원님들을 보니 7대 청소년의회가 어서 빨리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다. 이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로 소개를 들으며 친분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출범식을 열며 공식적으로 7대 청소년의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워크숍을 거치면서 정책 제안을 위한 지식과 마음가짐을 쌓고, 수 차례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정책을 갈고 닦았다. 각종 교류 활동과 축제에도 참가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도 매우 뜻이 깊었다. 이렇게 우리의 정책을 갈고 닦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의장님과 교육상임위 의원님들, 담당자 선생님, 멘토님들을 비롯한 우리 청소년의회 의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번에도 즐겁지만 한 편으로는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갈고 닦아 본회의를 앞둔 이 시점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제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되는 정책들과 5분 자유발언들이 언제나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의장 이승헌
서정고, 2학년



겨울방학 때 공고문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자 지원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여러 얻어가, 기대했던 대로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도 맡게 되고, 고양시 수많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를 위해 힘써주신 장소희 선생님과 멘토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위 위원장 최아인
덕은한강중, 1학년

안녕하세요, 안전상임위 부위원장 권세린입니다. 저에게 청소년의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어른들이 하는 의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더 많은 청소년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의회 활동 중 교류 활동과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한, 상임위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 제안이 쉽지 않다는 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협력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능력이 저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17만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열심히 활동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위 부위원장 권세린
백신중, 2학년



안전위 의원 서윤아
신원중, 1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청소년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어렵기도 했지만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워크숍도 다른 의원분들과 가까워지면서 정말 재밌고 신기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새로운 경험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멘토분들,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더 많은 청소년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알려졌으면 한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내가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기쁘고, 의회는 내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를 해 보니까 후회되지 않는 경험이었고 또 하고 싶다.



안전위 의원 이은교
도래울중, 1학년



안전위 의원 주하은
백신중, 2학년

내게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마치 넓은 바다를 향해 떠나는 돛단배와 같다. 돛단배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듯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싣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청소년의회 의 가장 큰 역할이다. 마치 돛단배가 바람의 힘을 받아 움직이듯,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즉,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곧 청소년의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돛단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듯이, 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의결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돛단배가 혼자 움직일 수 없듯이, 청소년의회도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회도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게 청소년 의회는 돛단배 같은 존재이다. 이제 나와 청소년의회에 대한 얘기를 짧게나마 해 볼 것이다.

별생각 없이 지원했던 청소년의회가 이제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엔 낯설던 정책과 의회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제가 고양시를 바꾸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변했다. 또 고양시의 청소년으로서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과 기회를 얻었다. 청소년의회는 내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 소중한 존재이다!!

나에게 청소년 의회는 책임감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단순한 열정과 관심으로 시작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이 활동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 대본을 만드는 과정 순간순간이 정말 의미 있었다.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냥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모전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은 충분히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특별한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칠수록 더욱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팀으로 활동하는 과정 가운데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누구나 고양시의 미래, 고양시 청소년으로서 꼭 한 번쯤 청소년의회 활동을 해 보길 바란다. 분명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란다!



교육위 위원장 광지유
풍동중,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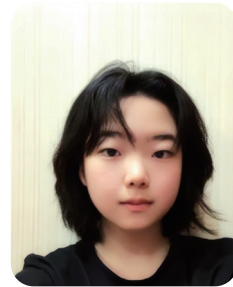


교육위 부위원장 양은호
풍동중, 2학년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정기회의, 워크숍, 교류활동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류활동을 통해 타 지역 청소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감정은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줬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들과 협력하며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이는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희망과 과정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의 장을 넘어 청소년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교육위 의원 구승아
양일중,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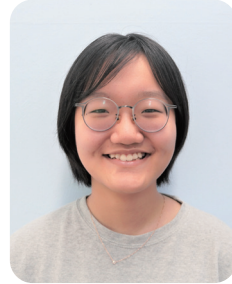


교육위 의원 조하은
저동중, 1학년

나에게 청소년의회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경험이나 서로의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내 보는 경험이 그 당시에는 어렵거나 긴장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나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평소에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의회에 참가한 뒤 여러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관해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졌다. 앞으로 남은 활동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의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지금은 정책 제안이나 법에 관해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어도 한 번 활동에 참가해본다면 더욱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7대 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서예림입니다. 제가 의회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다소 식상하게도 학교 게시판에 붙은 모집 공고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원서를 쓰면서도 제가 붙을 것 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디만, 미숙한 저를 뽑아주시고 의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기에 작은 역량이나마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 활동으로 말미암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정책 제안서를 쓰는 활동으로 인해 나의 관심과 제안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류 활동을 통해 다른 청소년과 교류하며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층 성장한 저를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만약 다른 누군가가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진다면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 위원장 서예림
목암중, 2학년



인권위 부위원장 김태연
저동중, 2학년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김태연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또 다른 하나는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책임감과 타인과의 대화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정책 제안서를 쓰며 청소년 인권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관련 조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은 저에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멘토님과 동료의원이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항상 도움을 주신 인권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양특례시 16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소년의원'이 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새 끝을 바라보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설레지만 어색하기도 했던 오리엔테이션부터, 청소년 의원으로 위촉받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출범식, 시의원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정책 제안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동료 의원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의정 워크숍 등 그간의 활동을 돌아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책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보완해 나가며 청소년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간의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제안자가 되어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한 경험은 저를 더욱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회의의 자리에 오기까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청소년의회 사무국에 감사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고양특례시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진일보하여 청소년 참여를 선도하는 기구로 발전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인권위 의원 김민기
광성드림학교, 2학년



인권위 의원 신주은
백석중, 2학년

저에게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항상 내 손으로 의회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만 할 뿐, 실현할 방법은 찾지 못하던 중에 친구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 청소년의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회 활동이 부담되고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멘토님들과 선생님, 같은 의원분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제가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뿌듯합니다.

대망의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저는 고양시 청소년 의회에서 약 8개월간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의회는 저에게 단순한 의회 활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저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치적 책임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토론과 협력은 제 시각을 넓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청소년 의회는 저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사회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팀워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실감하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의회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의 인연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의회에서의 경험은 제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의회의 목표와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권위 의원 조주연
백석중, 2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청년 멘토 김민재
안전상임위원회

본회의를 향한 준비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현재를 돌이켜 보니,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의회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세 번째 멘토 활동 인지가 부족했던 점은 더 채우고,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 보좌했습니다.

정책 제안서와 조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한다는 것은 청소년 의원에게도, 멘토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청소년의회'라는 자부심 아래, 더 나은 우리 지역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청소년 의원들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안전상임위에서 제안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실제로 시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올해를 끝으로 지난 3대 의회부터 6년간 함께해왔던 고양시청소년의회와의 동행을 잠시 마무리하게 됩니다. 6년간 청소년 의원으로서, 멘토로서 활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의원, 동료 멘토, 담당자 선생님 등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오래오래 간직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7대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한 청소년 의원들, 멘토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를 위해 항상 든든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시는 장소희 선생님과 마두청소년수련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저의 자부심인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가 더 승승장구하여, 고양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년 멘토 백채린입니다. 몇몇 멘토분들과는 달리 제가 멘토로 활동하게 된 것은 우연에 불과했으며, 의회 활동을 비롯한 각종 정책 제안 활동 경험 또한 존재하지 않아 여러 방면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으나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런 저였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의원님들뿐 아니라 저 또한 의정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고양시, 더 나은 청소년의 정주 환경을 만들고자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이런 고민들이 시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은 특히 힘들었지만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전해 보는 분야의 활동이었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끝까지 함께 해 준 인권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 애써주신 소희쌤과 다른 두 멘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존재가 고양시를 더욱 빛낼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 멘토 백채린
인권상임위원회



청년 멘토 홍승우
교육상임위원회

안녕하세요. 홍승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했던 제7대 고양시 청소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청소년 의원님의 뛰어난 역량으로 훌륭한 정책 제안까지 이뤄낸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멘토로서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청소년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자극을 받았던 만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단순 대외 활동, 스펙쌓기용이 아닌 진정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고양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최선을 다해왔던 점에서 분명 독보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껏 힘써주신 장소희 선생님을 비롯한 마두청소년수련관 모든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소년의원 여러분께서 고양시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편

부록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다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2024-01 |
| 발의연월일 | 2024. 5. 4. |
| 발의의원 | 김다인 의원 |
| 찬성의원 | 김다인 의장 등 9명 |

▶ 제안이유

-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정수 변경 및 의원 연령 제한범위 확장,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통해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회 실정에 맞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욱 효율성 있는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연령 제한범위 확장을 통해 의원들의 연령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과제를 더욱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현실적으로 참여 청소년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에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정수를 변경하여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 실정에 맞게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의원을 선출 방식으로 선거제를 채택하지 않았기에 본 조례의 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에 있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청소년 의회 과정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활동이 요구되며 본 조례에 의원의 연임여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의 연임이 가능함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고양시 청소년의회는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모의의회이므로 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통일하고자 함.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정수를 축소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6명 내외로 변경하고자 함.
-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대상에서 의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의장 또한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보다 더 자유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고양시 청소년의회 회의의 회의 일수의 경우, 당해 진행되는 활동 및 제안된 정책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 조례의 고양시 청소년의회 회의에 관한 내용 중 회의 일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회의의 구분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연령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12세 이상 18세 미만에서 11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정수를 31명에서 20명 내외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 본 조례의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 중 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 본 조례의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의 연임이 가능함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 고양시 청소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동일하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6명 내외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대상에서 의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 본 조례의 고양시 청소년의회 회의에 관한 내용 중 회의 일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회의의 구분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현행조례안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고양시 관련 부서 :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 | |
|------|---|
| 제정 | 2017. 01. 13 조례 제1834호 |
| 일부개정 |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② 의원의 수는 31명으로 한다.

제5조(선출방법)

-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안전위원회 8명 이내
 3. 교육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위원회 8명 이내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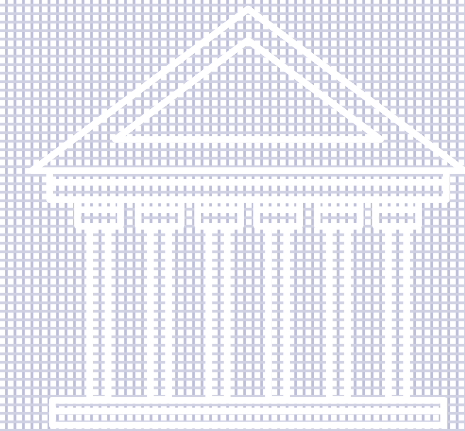
제11조(지원)

-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양시의회의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7. 조례 제2727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삶, 더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
고양시청소년의회가 함께합니다. ”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발행일 2024. 9. 21.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발행인 이재신

편집인 장소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대표전화 031-995-4153

홈페이지 www.gcyf.or.kr/vote

발간번호 GCYF-2024-03-001